



PET포장용기 분야 전문가

관리 · 기획 · 개발 두루 거쳐

신 우 식 / (주)효성 성형PU 경영지원팀 부장

현 재 국내 음료용기시장은 PET병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ET병이 음료용기시장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취급의 편리성과 함께 다양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음료 PET병의 한해 생산량은 약 22억 개, 금액으로는 약 3,200억원 규모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PET병의 국내 시장 업체별 점유율은 (주)효성이 약 50%, 기타 업체(롯데알미늄(주), (주)삼양사, 두산테크팩(주), 기타 중소기업 등)가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업체를 꼽으라면, (주)효성 성형PU 사업부를 들 수 있다.

(주)효성은 1979년 PET용기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 생산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내압PET 용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이 1983년인데 신우식 부장은 1984년 (주)효성에 입사해 PET용기 분야의 영업을 시작으로 16년 간 관리, 기획, 개발



등 거의 전 분야를 두루 거치며 PET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신 부장은 이제 업계에서도 'PET용기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신우식 부장은, PET병의 사업 특성을 설명해 달라는 물음에 "PET용기 사업분야가 초기 시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 투자비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의견을 개진하고, "수요가 많으면 불가피하게 설비증설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설비 증설비로 인해 투자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주)효성은 지금까지 PET용기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로 약 3,500억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내년 설비증설을 위해 약 5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신 부장은 또한 PET용기의 단가가 1.5l 콜라병 기준 140원 정도로 형성되기 때문에 국내수요만으로 수지를 맞추기가 힘들다며 현재

수출비중(현재 약 20%)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신우식 부장은 PET용기 분야의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신제품 개발이라 밝혔다.

(주)효성 성형PU사업부는 국내 최초로 갈색 용기(일화 맥콜), 타원형 샴푸 용기(LG 차밍), 200ml 용기(한국야쿠르트 뿌요소다) 등 신 부장의 손을 거쳐간 포장용기는 수도 없이 많다.

특히 타원형 샴푸 용기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보편화가 됐지만 개발 당시만 해도 성형과정에서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6개월 간의 고생 끝에 기술적으로 해결해 냈다.

다른 하나는 PET용기에 색을 내는 안료인 master batch를 kg당 9,000원에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던 것을 국산화에 성공해 kg당 2,000원으로 가격을 낮춰 업계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보람 있던 일이라 회상했다.

신우식 부장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중국 투자에 실패했을 때라고 말했다. (주)효성에서 1995년 중국 북경에 생수용기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했으나 1998년 약 120만 달러의 손해만 입은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공장의 기획단계에서 가동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실패했을 때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효성에서 1996년에 북경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에 음료용기를 납품하는 공장을 설립했는데 지금까지 꽤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현재 (주)효성은 중국 투자의 실패를 거울삼아 미얀마에 청량음료 PET병 공장을 설립 추진 중에 있다.

신 부장은 지금까지 (주)효성에 근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기쁜 순간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가장 기분이 좋은 순간은 자신이 개발한 PET용기를 사용한 업체가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소비자들이 (주)효성에서 생산한 PET병에 담긴 음료수를 먹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신우식 부장의 모습에서 한 분야에서만 16년을 일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전문가다운 모습이 보였다. ☞

박기진 기자

묵묵히 자신과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숨은 일꾼을 소개해 드립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